

유기농업으로 지역활성화를 이룩하는 아야정(綾町)

무카이 요시미 소장
(마야자키현 아야정 유기농업개발센터)

지역농업의 개요

- 인구 7,492명 ○ 농업취업인구 1,529명
- 농가호수 460호(전업농 206호, 제1종겸업농 98호, 제2종겸업농156호)
- 경지면적 532ha(논287, 밭165ha, 과수원 80ha)
- 농업생산액 3,397백만엔(쌀 220백만엔, 채소 376백만엔, 과수 216백만엔, 축산 1,408백만엔)

유기농업실천 배경

綾町(아야쵸)의 유기농업은 농촌지역중 주민건강이 나쁜지역 4위로 선정되었다는 매스컴의 보도로 마을주민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1973년에 “건강하며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의 슬로건으로 신선한 텃밭 채소가꾸기에 의한 건강한 생활운동을 지향하는 1평 채소밭의 보급을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이러한 운동 속에서 지력배양에 의한 유기농업이 실천되고, 소비 후 남은 채소의 판매대책으로서 주1회의 임시 노천시장개설로 발전하였다.

유기물확보로서 1978년에 분뇨를 액상 발효시킨 자급비료 공급시설, 1981년에 가축분뇨처리시설, 1987년에 가정의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질비료로서 유효하게 활용한 생활 폐기물 퇴비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유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농가에 대해서는 퇴비장 설치와 더불어 “퇴비 증산품평회”를 열어 유기질자원의 이용체계를 확립

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1983년에는 北九州공생사연합과 직거래를 시작하고 이 직거래를 기회로 소비자, 생산자, 농협, 행정(町)의 4체가 하나되어 교류회를 개최하였다. 유기농업을 확립위해 기반정비가 추진되고, 또한 보건측면에서도 町民의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일상의 식생활을 재평가하는 운동(영양사에 의한 영양학교)이 전개되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5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연생태계 농업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자연생태계농업에 관한 각종 사업의 추진, 운동을 원활히 전개·추진하기 위해서 유기농업추진회를 설치하고, 그 추진모체로서 유기농업개발센터, 실천모체로서 유기농업실천진흥회를 설치하여 자연생태계 농업확립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유기JAS(일본농림규격) 규격농산물의 등록인정기관으로綾町(아야쵸)가 정부에 신청 중에 있고, 이를 위한 산지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천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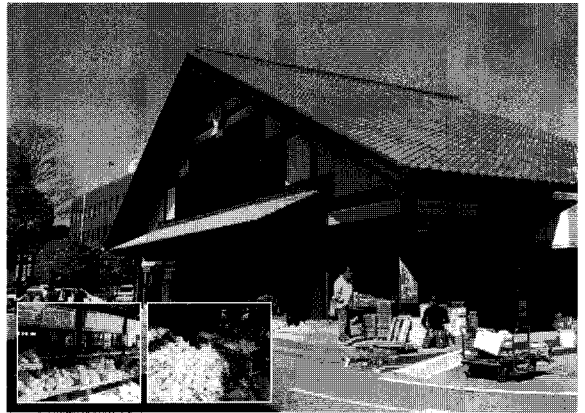
자연생태계의 기본을 지력회복에 두고, 실천농지로서 포장을 등록하여 이 등록 농지는 매년 유기농업개발센터에서 토양분석을 실시하고 이 토양진단 결과에 의하여 綾町가 제정한 생산자재 관리기준에 따른 유기물 및 유기질비료로 지력회복을 하고 있다. 유기물은 우분, 돈분, 볏짚, 왕겨를 혼합하여 수 차례 뒤엎고 약 1년에 걸쳐서 퇴적시킨 완숙퇴비, 인분을 부숙 발효시킨 액비, 가축분뇨를 투입하고 있다. 병충해방제 기술은 토양소독제,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병해충 방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본정부가 정한 사용 가능한 화학합성 자재 등의 범위 내에서 살포한다.

농약사용의 저감 방법은 방충망을 이용한 비가림 시설, 첨단형 터널 등의 활용, 성 페로몬제의 이용, 실버폴리 멀칭 등에 의한 기피효과에 따라 농약의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토양선충 대책은 억제효과가 있는 작물을 도입하며, 작물의 효과적인 윤작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재배기술 지도는 농협과 유기농업센터가 하나되어 각 작물별 분과회에서 사전 작부계획의 검토 및 재배지도, 작부포장의 현지 검토회, 생산판매의 반성 검토회 등을 하고 있다.

경영적 성립과 지역활성화

유기농업을 경제적으로 보면 생산은 무농약·저농약 재배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량과 품질이 불안정하며 위험이 크지만, 판매는 생협을 통한 판매, 계약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변동이 없고 농가는 경영계획을 쉽게 세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



▲ 아야초의 (진짜 유기농산물 직판소)

다. 그리고 아야町에서는 독자적인 “농축산물종합 가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계약농가의 수익성 감소분에 대해서는 生産減價를 기준으로 한 가격보전을 하여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유기농산물 등에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근교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농산물 수확 체험 연수, 생협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직거래 관광,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하는 유기농업추진대회, 음식체험광장 등을 매년 개최하여 생산자의 유기농업 실천의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그리고 유기농산물을 찾아서 綾町를 방문하는 사람이 연간 120만 명이 넘으며,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 자연순환 시스템의 확충과 농가의욕의 고취, 유기농업실천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생력화를 위한 기계화 체계의 확립, 유기JAS규격의 적용, IT를 활용한 재배관리와 판매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통한 공생(그린투어리즘)관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있다.㉞